

연령주의와 노인빈곤

2023. 10. 5.(목) 13:00-16:00

주관: 국가인권위원회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배경

노인이 노년의 시기에 존엄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재난 상황 속에서 취약성이 더욱 심화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그리고 매년 증가하는 노인 학대 사례 등 아직도 풀어가야 할 노인의 인권 문제가 산적해 있다.

노인이 노년의 시기에 존엄한 삶을 영위하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잃지 않도록, 특히 취약계층으로 내몰리는 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인 인권 전반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인권 의제 설정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표

- 가. 초고령사회 노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향 제시
- 나. 노인의 정의, 연령 및 정년 기준 등 사회적 의제 공론화
- 다. 현행 노인복지 정책 진단과 인권적 접근 및 개선 모색
- 라. 유엔 등 국제사회 노인 인권 활동에 정부의 참여 독려

중점 논의사항

한국 사회에서 노인은 생계를 위하여 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65세 이상 노인 상당수는 일하고 싶지 않으나 생계비를 마련하고자 일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 그리고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노년이라는 시기까지도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영위하기가 힘겨운 노인이 다수 존재한다는 작금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서 자살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인식함과 동시에 노년의 끝자락에서 더 이상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가 어려운 현세대 빈곤 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제13차 노인인권포럼에서는 연령주의와 노인빈곤을 주제로, 빈곤으로 인하여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인권 보호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THE 13TH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제13회 세계인권도시포럼

2023. 10. 4. - 10. 7.



세계인권도시포럼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WWW.WHRCF.ORG | WHRCF@GIC.OR.KR | +82.62.226.2734